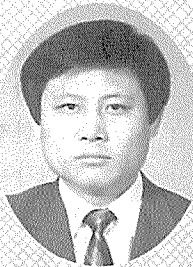


거듭나는 협회상 정립 기대한다



여 영 래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부 기자〉

소 띠 해인 정축년(丁丑年) 금년도에는 석유협회가 발족된지 17주년을 맞는 해임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협회 설립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일대 전환기적 시점에 서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는 17년여의 「역사」가 설명해 주고 있듯이, 국내 석유산업의 중추(中樞)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정유5사의 이해 및 우호증진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산과역으로 기여해 왔음이 첫번째 사유라고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유가자유화가 그 두번째 해당사항이 될 것이란 관점에서이다.

「회원(精油5社)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협회 설립목적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듯이, 그 동안의 협회 운영의 면면은 선발社와 후발社라는 다소 보수적인 개념은 차치해 두고라도 각기

다른 경영구조 및 전략을 추구하는 거대 기업군의 다양한 주의·주장을 큰 무리 없이 집약, 조정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각고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작금(昨今)에 와서는 국내의 석유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들이 또 다른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대외적인 환경변화까지는 「논외」로 치부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 겪인 유가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석유산업의 자유화시대 개막이 야말로 업계는 물론 협회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변화요구가 절대절명의 당면과제로 떠올라 있는 것이다.

회원사인 정유5사는 자유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기 위한 전략수립에 일찍이 발벗고 나서 그 나갈방향의 「가닥」만큼은 구체화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이에 걸맞는 협회의 내부변화 모색도 시급을 요하는 과제로 보여진다.

정유5사도 이젠 「살아남기」위해 경쟁의 파고(波高)가 더욱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임인 만큼 종전과 같이 상호간 이해와 우호, 어깨를 맞댈수 있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나 여력은 상당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회원 각사들에서 일고 있는 숨겨진 움직임과 최소한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열 가다듬기에 협회는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감을 지적한다면 석유협회가 지니고 있는 대외적인 위상과 공신력과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내기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물론 석유협회의 기능이 각 회원사의 각양각색의 의견을 집약, 조정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利」가 될 수 있는 방향하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본분임을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지나치게 회원 각사의 의중 살피기에 급급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는 느낌이다.

이같은 지적은 다분히 석유협회를 출입하면서 私의으로 느낀 「感」일 따름이지만, 만의 하나 그러한 분위기가 협회 내부적으로도 부지불식간에 「기류」가 됐다면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석유산업이 자유화시대를 맞아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제반사항들에 대한 유효 적절한 대응능력 제고는 물론 「국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공공(公共)적인 성격이 부여된 협회 설립목적에도 적극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그렇다.

아무튼 현재 변혁의 몸부림 속에서 차세를 기다리고 있는 석유협회가 자유화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협회상을 정립하면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